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10. 14.(금) 06:00 ~ 2022. 10. 16.(일) 23:00
- 상담건수: 1,515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한국인의 밥상」 ‘인연의 한 끼, 마음을 잇다’

-방송일시 : 2022. 10. 13.(목) 1TV (19:40-20:30)

밥으로 정을 쌓고 마음으로 맺은 인연들의 한 끼를 소개했다. 보육원 소년과 엄마가 되어준 족발집 주인의 인연, 북한이탈주민 부부 이야기 등 감동적인 사연이 많이 소개되어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본인은 그저 시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송에서 소개한 조리법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한다. 감동과 유익함이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 ○ 방송 제언(98명)

-프로그램명 : 「다큐 온」 ‘다큐온 -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방송일시 : 2022. 10. 14.(금) 1TV (22:50-23:40)

지난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모색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와 논의 끝에 소각장을 설치한 덴마크와, 주민들이 모르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마포구의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서울시 입장에 근거한 방송이라 상당히 편파적이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동네 한 바퀴’ 외 10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다큐 온’ 외 6건.
  - ‘다큐 온’ 관련 (동의수 1,342 / 청원 성사) : KBS의 공신력을 믿습니다. 마포 소각장 관련 보도 중단하시고 보충취재 후 방영 바랍니다.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 IV.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1,515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1)</sup>	계
937	31	2	-	545	1,515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843	392	37	-	-	243	1,515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462	1,053	-	1,515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95	11	126	183	1,515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적 60분」</li> <li>- 후속 방송 요청</li> </ul> <p><b>【보 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뉴스 9」</li> <li>- 보도 호평</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의 밥상」</li> <li>- 방송 호평</li> <li>○ 「다큐 온」</li> <li>- 방송 제언</li> <li>○ 「사랑의 가족」</li> <li>- 출연자 호평</li> <li>○ 「6시 내고향」</li> <li>- 진행자 호평</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노래자랑」</li> <li>- 진행자 섭외 제언</li> </ul> <p><b>【라디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진우 라이브」</li> <li>- 진행자 제언</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시 내고향」</li> <li>- 「사과와인」 연락처 문의 105건</li> <li>○ 「다큐 온」</li> <li>- 「방송 제언」 100건</li> <li>○ 「전국노래자랑」</li> <li>- 「진행자 섭외 제언」 72건</li> <li>○ 「동네 한 바퀴」</li> <li>- 「경옥고」 연락처 문의 35건</li> <li>○ 「2TV 생생정보」</li> <li>- 「버섯전골」 연락처 문의 29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11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53건</li> <li>○ 「수신료」 문의 26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26건</li> <li>○ 「전화교환」 문의 17건</li> <li>○ 「사업 및 행사」 문의 4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포함 183건</li> </ul>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p>후속 방송 요청</p>	<p>○ 「추적 6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 2. 27.~2019. 8. 30. 1TV 방송. (총 1,326부작)</li> <li>- 무려 36년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온 「추적 60분」이 종영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시청자이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각종 비리와 맞서 싸웠던 좋은 방송이 사라져 우려된다. 계속 후속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작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아쉽다. 2022년에는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보 도 ]	
<p>보도 호평</p>	<p>○ 「KBS 뉴스 9」 「[단독] ‘찾아가는 긴급복지’ 대상, 올해만 11명이 고독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0. 13.(목) 1TV (21:00-22:00)</li> <li>- 얼마 전 암에 걸린 어머니와 지병을 앓아온 두 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 9시 뉴스에서 수원 세 모녀 말고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열한 명 더 있었다고 보도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그 사이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유익한 보도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시사·교양 ]	
<p>방송 호평</p>	<p>○ 「한국인의 밥상」 「인연의 한 끼, 마음을 잇다」(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0. 13.(목) 1TV (19:40-20:30)</li> <li>- 밥으로 정을 쌓고 마음으로 맺은 인연들의 한 끼를 소개했다. 보육원 소년과 엄마가 되어준 족발집 주인의 인연, 북한이탈주민 부부 이야기 등 감동적인 사연이 많이 소개되어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본인은 그저 시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송에서 소개한 조리법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한다. 감동과 유익함이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다큐 온」 ‘다큐온 -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98명)  - 2022. 10. 14.(금) 1TV (22:50-23:40)  - 지난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모색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와 논의 끝에 소각장을 설치한 덴마크와, 주민들이 모르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마포구의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서울시 입장에 근거한 방송이라 상당히 편파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출연자 호평	<p>○ 「사랑의 가족」 ‘신나는 육아전쟁’  - 2022. 10. 15.(토) 1TV (13:05-14:00)  - 두 아이를 키우는 강태규·이인숙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잘 보여도 힘에 부친 육아를 경험과 촉각에 의지해서 해나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다. 계속해서 공영방송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진행자 호평	<p>○ 「6시 내고향」  - 1TV (월-금) (18:00-19:00)  -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늘 감사하며 시청 중이다. 무엇보다 윤인구·김진희 아나운서의 따뜻하고 친근한 진행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아무쪼록 두 진행자가 오래도록 진행을 맡아 시청자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와 소식을 전달해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 연예·오락 ]	
진행자 섭외 제언	<p>○ 「전국노래자랑」 ‘경기도 하남’(4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0. 16.(일) 1TV (12:10-13:40)</li> <li>-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가 이날 방송인 김신영 씨로 교체됐다. 사실 본인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은 송해 선생님처럼 연륜이 묻어나는 중장년층 진행자를 기대했다. 김신영 씨는 아직 젊어서 경험으로 축적된 연륜이 부족하고, 음악인도 아니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지도 않기에 해당 방송의 진행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라디오 ]	
진행자 제언	<p>○ 「주진우 라이브」 (8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R (월-금) (17:05-18:58)</li> <li>- 본인은 택시 기사로 운행 중 항상 라디오를 청취한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서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본인의 정치 성향은 조금 숨기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